

## (Robert Vannoy) , 신명기 강의 15

© 2011 Robert Vannoy 박사 , Perry Phillips 박사, Ted Hildebrandt

### 제단, 요약 [최종강의]

#### 1. 자르지 않은 돌 제단: 출애굽기 20:24-26

왜 제단을 쌓는데 흙과 다듬지 않은 돌만 사용합니까? 그것은 광야만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호바트는 이것이 단지 광야에 대한 언급이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그것은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의 때를 의미했습니다. 이것이 사용될 제단의 종류였습니다. 사실, 제단에 대한 지시는 출애굽기 20장에서 바로 시내 산에서 주어졌습니다.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그 시점에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금송아지 배교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율법은 시내산에서 막 주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이 곧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이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는 제단을 어떻게 쌓을 것인지, 어디에 놓을 것인지에 대한 강력한 규정이 있었으며, 이는 백성들의 임의적인 선택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내가 내 이름을 기록한 모든 곳에서 너희에게로 가리라” 고 말하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그러므로 그 집을 어떻게 지을 것인지, 어디에 위치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은 있었지만 한 곳만 사용하라는 지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확실히 사무엘 시대의 관행이 그

율법과 일치했으며 제단이 두 개 이상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할와르다 는 질문합니다. 그러면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12장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습니까? 우리는 법칙과 결론을 채택합니까, 아니면 원래 단일 제단의 중앙 집중화로 발전하는 다수의 제단과 함께 오랜 기간의 개발입니까? 신명기 12장은 중앙 집중화를 요구합니까?

## 2. 신명기 12:14

그러므로 12장 14절에 대한 논의는 정말 중요한 구절이 됩니다. 14절에서 13절로 시작하여 “너희가 원하는 곳에서 번제를 드리지 않도록 주의하라. 오직 너희 지파 중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만 그것을 드리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지키라.” “모든 곳이 아니라 너희 지파 중 한 곳에서니라.” Halwarda는 “당신의 부족 중 하나에서”라는 문구에서 얻을 수 있는 첫인상만으로는 멈출 수 없다고 말합니다. (신명 12:14) 히브리어 사용법에 따르면, 반드시 하나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종류의 표현은 영어 단어 “어떤”, 즉 “너희 지파 중 어느 곳에서나” 와 동일한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당신의 부족 중 어느 하나” 또는 “당신의 부족 중 어느 하나” 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명시적으로 명확하지 않습니다.

3. 신명기 18:6 레위인들의 출현 이제 할와 다가 지적하는 것은 신명기 18:6과의 비유입니다. 신명기 18장 6 절에는 “레위인이 오면”이라는 규정이 있는데, 킹제임스 성경은 이 부분을 다음 과 같이 번역한 것을 주목하십시오. 그가 마음에 원하는 바를 다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향하면 그 곳에 여호와 앞에 섰는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것이니라 이제 히브리어 표현은 실제로 동일하지만 차이점은 히브리어 단어 ' *ehad* : “ 네 문 중 하나 에서” 또는 “ 네 문 중 하나 에서” 에 대한 논쟁에 있습니다. 그러나 요점은 이것이 한 문 에서 오는 레위인에게 적용되는 규례가 아니라 어느 문 에서 나오는 모든 레위인에게 적용되는 규례라는 것입니다 . “레위인이 오면 누구든지 네 성문에서 오느니라.” 따라서 표현은 “from one of” 또는 “from any of” 방식으로 명시적으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이는 그것이 배치되는 맥락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4. 신명기 12:14: 민수기 16:7 [고라의 반역], 특이점?

그러나 신명기 12장 14절을 보면 “그 곳에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 단수 아닌가요? 한 곳 이상의 장소를 의미한다면 “주께서 택하실 곳”이라는 복수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민수기 16장 7절에서 여러분은 광야에서 고라, 다단, 아비람이 반란을 일으킨 것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택하신 사람은 거룩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는 너무 많은 짐을지고 있다.” 이제 요점은 “주께서 이렇게 택하신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라는 단어는 단수인데, 문제는 모세와 아론으로 구성된 제사장과 지도자들의 직분을 250명까지 확장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관련된 사람은 250명입니다. 따라서 선택은 두 개의 복수형 중 하나이지만 본문에는 “the man”이 단수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의 문맥에서 그 의미는 분명합니다. “그 사람”은 두 사람이든 250명이든 상관없이 사용됩니다. “주께서 택하실 사람”이라고 되어 있지만 반드시 한 사람만 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세와 아론, 아니면 이 250명이 모세와 아론과 같은 직분을 맡았습니다. 그것은 “주께서 택하실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한 명 이상입니다. 지도자가 될 사람들입니다.

이제 나는 주석적으로 신명기 12장이 한 장소와 한 지파, 또는 한 장소 이상을 의미할 수 있지만 주님은 어느 지파에서든 이것을 지시하실 것이라는 장 자체의 표현에 기초하여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언어

사용에 따라 둘 중 하나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2장은 출애굽기 20 장 24절과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이름을 기록한 모든 곳에서 내가 네게 강림하여 네게 복을 주리라.” 문제는 하나 이상이 아니라 장소가 인간, 자의적 수단 또는 신의 선택에 의해 선택되는지 여부입니다. 인간이 선택한 “모든 곳” 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한 “장소” 에 있습니다. 다중성 대 중앙집중화인가요? 아니요. 문제는 하나 이상이 아니라 인간의 임의적 수단으로 장소를 선택하는가, 아니면 신의 선택으로 장소를 선택하는가입니다. 그게 요점입니다. 그리고 그 시점에서 출애굽기와 신명기 사이에는 일관성이 있습니다.

5. 신명기 12:18 온 가족 여행 그는 또한 출애굽기 20장의 사양 뒤에 숨은 모티브가 정확히 가나안에 존재했던 종류의 제단을 금지하는 것임이 드러났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이방인 가나안 사람들이 가졌던 것과는 확연히 다른 종류의 제단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예배는 가나안 사람들의 예배와 혼동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출애굽기의 규정의 요점은 이스라엘의 제단이 가나안의 제단과 뚜렷이 달라야 한다는 점을 매우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그는 또한 신명기 12장에 모든 제물을 선택된 장소로 가져와야 한다고

말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는 온 가족이 종들과 레위 사람들과 함께 나타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신명기 12장 18절: “너와 네 아들과 네 딸과 네 남종과 네 여종과 네 성문 안에 있는 레위인은 이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라.”

이제 그가 지적하는 것은 온 가족과 종들과 레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루살렘에서 150km 떨어진 갈릴리 북쪽의 단과 같은 도시에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최소한 일년에 세 번, 수확이 정점에 이르렀을 때 자원 제물과 기타 필수 제물을 바칩니다. 온 가족이 예루사 렘으로 여행을 떠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Halwarda는 그의 기사에서 유럽의 맥락에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 논의합니다. 최소한 일주일 정도는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이러한 필수 제물을 만들기 위해 플로리다나 다른 곳으로, 아니면 더 먼 곳으로 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레위인들은 어떻습니까? 마을에 가족이 많이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 레위인은 일 년 내내 길을 따라 다녔습니다.

6. 성소는 하나이지만 제단은 다양함      할와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 당신이 북쪽 성읍 출신의 레위 사람이라면 왜 그냥 예루살렘에 머무르다가 그들이 오면 영접하지 않겠습니까?” 그는 희생의 장소를 단 한 곳만 갖는

것은 비실용적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실행될 수 없었습니다. 그의 결론은 이스라엘에는 송배를 한 곳에 묶는 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항상 중앙 성소(원래는 실로에 있었고 나중에는 예루살렘에 있음)뿐 아니라 지역적 장소를 규정하는 율법 아래서 살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앙 성소가 없었고 법궤와 성전과 관련된 성소의 우선권이 없었다는 뜻은 아니지만, 성소를 제외한 다른 제단에 드리는 배타성이나 불법성이 있는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7. 제단의 위치 그래서 규정한 것은 제단을 쌓을 장소를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어느 정도 정해 주신 장소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신현이나 명시적으로 설명되지 않은 모든 것에 의해 그것은 주님께서 지시하신 장소로 제한됩니다. 제단을 만드는 데 사용할 재료는 규정되어야 하고, 가져오는 제물도 규정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지역에 제단을 주셨지만, 이것이 모든 마을이나 몇 마일마다 제단이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단지 임의의 모든 곳에 제단이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12장 21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 네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네게서 먼 곳에 두시려고 택하셨은즉 너는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고 명령하신 소와 양을 잡고 네 마음에 원하는 것은 다 네 성문에서 먹을지니라.

” 즉, 동물을 도살하기 위해 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 다른 곳에서도 동물을 죽이거나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리가 멀면 비실용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단은 땅 전체에 걸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특정 장소를 지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약간의 제한이 있었지만 중앙 성소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른 모든 제단은 불법인 것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백성이 주변에 있는 가나안 예배 의 유혹으로부터 보호 하고 극한 상황으로 인해 그 제사 제도를 거의 따르기가 불가능하게 만들지 않고 주님께서 마련하신 제사 제도의 규정에 따라 그들이 교제를 유지하도록 많은 제단을 제공하셨습니다. 거리.

#### 8. 맨리의 결론 : 제단의 수가 아니라 그 성격

기본적으로 이것이 Halwarda의 견해입니다. 우리가 톰슨의 논평과 서문을 읽어보면 톰슨에게서도 거의 같은 입장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매우 유사한 관점도 보고 싶다면 제가 대학원생들에게 읽어보라고 요청한 Manley , *The Book of the Law*를 읽어보세요. Manley는 이에 대한 전체 장을 가지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그는 동일한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는 “ 중앙집중화 언어를 사용하면 이러한 해석을 읽거나 읽을 수 있습니다. 신명기 12장의 맥락에서 실제 초점은 많은 여호와의 제단과 하나 사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의 제단과 그 이름이 멸망될 다른 신들과 여호와께서 거하실 장소와 이름 사이에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그들의 숫자가 아니라 그들의 성격이다. “말씀을 한 센터에서 읽든 여러 센터에서 읽든, 정식으로 승인된 다른 제단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신명기 16:21, 22에서는 그것들의 존재를 묵상하며 , 신명기 27장에서는 그것을 건축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므로 신명기에서 반대하는 것은 제단의 다양성이 아닙니다.

또 다른 책은 HM Segal , *The Pentateuch: Its Composition and Authorship*입니다. 87페이지 이후에는 예배의 집중화에 관한 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읽을 수는 있지만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고 기본적으로 같은 결론입니다. Manley, Thompson, Segal은 일반적으로 신명기 법률에 따라 예루살렘에서 제단의 다양성이 제외되지 않았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 9. 코스 요약 - 3개 영역: 구조와 완전성(조약), 예배의 집중화, 법규의 순서

이제 우리가 이 전체 소개 부분을 이끌어 내는 것은 신명기 연구에 세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는 현재 비판 이론에 대한 매우 확고한 정통 대응이 있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이 책의 전체 구조이며, 클라인의 작업과 조약/언약 비유를 사용하는 다른 작업은 비판 이론에 맞서 신명기의 완전성과 통일성을 뒷받침하는 좋은

논증을 제공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벨하우젠의 관점에 중요한 중앙집권적 송배 문제입니다 . 나는 Halwarda , Thompson, Manley 및 다른 사람들의 입장이 그 문제에 직면하고 Wellhausen이 하는 것과는 상당히 다른 관점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대안적 입장을 제시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문제는 복잡하고 세부적이어서 설명할 수 없지만 소위 J 코드, E 코드, 신명기 코드, 성결 코드, 제사장 코드를 통한 제단의 진행에 관한 문제입니다. 즉, 일종의 역사적 진행 과정에서 일련의 병행 발전과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Manley는 이 책 *The Book of the Law: Studies in the Date of Deuteronomy* 에서 이 문제를 아름답게 다루고 있습니다 . 그는 JEDP의 점진적인 발전과 후속 코드 계획에 대한 수많은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신명기의 언약 법전과 대조되는 구체적인 율법과 그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결론에 대한 자세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Manley의 논의는 Wellhausen에 대한 훌륭한 대응입니다.

따라서 구조와 완전성, 예배의 중앙집중화, 코드의 순서라는 세 가지 영역에서 지난 몇 년간 복음주의 관점에서 엄청난 양의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단지 신명기 연구 분야를 지배했을 뿐입니다. 다음 수업에서는 신명기 4장부터 30장까지에 대한 학생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Connillia Williams와 Ted Hildebrandt  
가 각본을 맡았습니다. 거친 편집: Ted Hildebrandt  
Perry Phillips 박사의 최종 편집  
페리 필립스 박사가 다시 해설함